

# 투데이

## U대회 경기장 광주시 직접 발주할 듯

### 1500억 규모 건설 지역업체 49% 참여 장점 羨시장 "입찰비리 우려...솔로몬의 지혜 필요"

1500억원 규모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경기장 건설 2곳에 대한 발주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광주시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주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투명한 입찰행정의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가 공사를 직접 발주하되 비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투명한 입찰행정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돼 U대회 경기장 건설이 직접 발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시장은 "U대회 다목적체육관(900억원)과 수영장(600억원)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과 관련해 시가 직접 발주하느냐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다"며 "최근 건설협회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직접 발주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가 직접 발주한 공사에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돼 있다"며 "그러나 시가 직접 발주하면 심사 20일 전에 설계심사위원을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시가 발주방식을 놓고 깊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가

직접 발주해야지만, 지난해 말썸이 된 총인사실 입찰비리 여파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어려운 지역경기를 살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행정의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가산점 혜택이 없어서 광주시가 직접 발주한 뒤 설계심사위원들이 부정에 얽히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꼬마 물고기들이 잘 자라라”

10일 광주 북구 용산교 아래에서 열린 '영산강 어머니터 치어방류 행사'에서 송광은 북구청장과 봉사단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잉어와 붕어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발전연구원, 국내 첫 중국연구센터 설립

### 11월 개소...산업·경제·관광교류 등 연구활동

전남발전연구원(이하 전남발전)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국내 시·도발전연구원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전남발전은 10일 "동북아경제권 시대에 발맞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화된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1월에 중국연구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 연구센터 개설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처음이다. 중국연구센터는 ▲산업·경제 ▲관광교류·투자 ▲자원 공동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한·중 FTA 대응과 중국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연구포럼'과 정책토론회 등 크고 작은 학술행사도 열 예정이다. 특히 상하이시와 저장성(浙江省), 장시성(江西省) 등 중국 내 주요 성(省)이나 시(市)와 관련된 통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지역 사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사급·석사급 2명이 센터장 등으로 전남 배치된다. 도청내 중국 전문가와 코트라, 무역협회, 주한

중국 영사관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근무 중인 소위 '중국통(通)'들이 운영과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각 분야 국내 전문가 184명이 전문가 풀로 공동 연구작업에 나선다. 전남발전은 이달 안으로 분과별 연구과제를 확정짓고 11월 중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근철 전남발전 원장은 "중국의 위상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센터가 여러 분야에서 전남의 효과적 대(對) 중국 교류와 더 적극적인 중국시장 공략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귀농은 전남·귀촌은 충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가구 수는 8706 가구, 인구 수는 1만7745명이다. 지난해 전체(1만503가구, 2만3415명)의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귀농은 농어촌으로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 귀촌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2%, 40대가 24.4%를 차지해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충북(2085가구), 전북(1380가구), 전남(1355가구), 경북(1317가구) 순이다. 귀농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귀촌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이었다. /연합뉴스

## “광주 폐기물연료화 사업 부실 투성이”

### 김보현 시의원 주장

광주시가 상무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광주 남구 양과동에 추진중인 폐기물연료화(RDF) 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보현(무소속·서구 2) 의원은 10일 제21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1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 폐기물연료화(RDF)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명의 용역 자문위원

중 단 4명이 참석한 지난달 14일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는 용역사업 준공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특정공법 배제 논란과 제3섹터 사업 추진의 타당성, 고형연료수요처 문제 등이 용역을 통해 전혀 현안질의를 통해 “1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 폐기물연료화(RDF)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명의 용역 자문위원

이러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비관을 수용하는 자세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는 자문위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에게 서면을 통해서라도 검증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공법 배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기술 제안방식으로 업체를 공모할 예정인데, 그때 좋은 공법이 들어오면 반영할 것”이며 “제3섹터 사업 추진은 2회에 걸쳐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北 “납축 수해지원 받겠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10일 통보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오늘 오전 판문점 적십자회담을 통해 수해지원을 받겠다면서 지원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북측의 입장 통보는 우리 정부가 지난 3일 대북 수해지원을 제의한 지 7일 만에 나온 것으로 남북 당국간 후속 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SOC 민간 선투자 활성화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민간 선투자 사업이 확대되고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재정보강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 선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선투자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도로 등 SOC 사업을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추후 이자비용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는 4000억원의 긴급 자금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4000억원의 자금을 일시 차입해 공공기관 이전 청사 신축과 부지매입 등 이전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 청사 신축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연합뉴스

## 국토부,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4000억 긴급 투입

## 흡연을 세계 2위 한국

### 담배값 2500원 이상 검토

보건복지부는 OECD 평균인 27.5%를 훌쩍 뛰어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2500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 단계적 인상안과 즉각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계적 인상안은 2013년부터 500원을 인상하고 매년 1000원씩 올려 2015년까지 2500원을 올리는 방안이다. 즉각 인상안은 담배 내년부터 2500원을 올린 뒤 물가와 연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이 많아 실제 담배값이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 1면 '흔들리는 민주당'서 계속

패거리 정치가 굳어지다 보니 당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가까스로 후보를 뽑아도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 학원장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 후보조차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정권교체를 의미할 건넌 것 아니냐는 체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경선 후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 완장을 중심으로 당의 일부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 바깥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연일 '공약행보'를 보이며 민심을 얻어가고 있다. 안 원장은 출마선언 전부터 박 후보

와 양자구도를 만들어가는 양상이다. 야권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은 궤멸 직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 지도부와 중진, 특정 정파 의원들이 이 같은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는 책임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10일 열린 중진모임에서는 ‘말뼌인 해산’ 요구를 했다. 해산을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홍석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위기 의식과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안철수 열풍이 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지 못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두문점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이 사는 길은 대의를 위해 당의 두 대표부터 솔선수범해 먼저 몸을 던지는 심정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다들유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b>총부채</b>	<b>180,450,000원</b>	<b>36,035,000원</b>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b>총부채</b>	<b>190,050,000원</b>	<b>14,450,000원</b>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이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 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성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한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만의 이한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한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90204-중-473호